

건강보험 체납예측모형을 통한 체납세대의 유형화 및 특성

이 애 경[†], 최 인 덕
국민건강보험연구센터

<Abstract>

Categorized the Contribution evasion through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evasion expected model

Ae Kyoung Lee[†], In duck Choi
National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tegorize the contribution evasion and develop the expected models for contribution arrears in National Health Care System. The modified logistic regression model in non-payments was used as logistic regression model based on the statistical method.

By using this model, we arranged non-payment types and typical branches those are appeared by statistical technique. First fact, sex and age branches those are able to take a part in economy had effect mostly. Also they had difference in non-payment probability by existence of their incomes and property. Especially people who didn't have their own house and car were appeared in high non-payment probability, disease and reduction characteristic(rare diseases, reduction of seniors, handicaps, numbers of medical treatments) didn't effect much in probability.

The reason for some characteristic of non-payment which is higher than the correct threshold value of Logistic Regression Model (a suggested model for predicting non-payment)'s distribution of probability was mostly moral hazard. Living difficulty was

* 접수 : 2004년 3월 19일, 심사완료 : 2004년 6월 7일

† 교신저자 : 이애경,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책임연구원(02-2071-2551, aklee036@nhic.or.kr)

big reason for non-payment, but moral slackening was the bigger reason for non-payment. But it is careless to decide that moral hazard is just the reason, there is a necessity to examine on the side of sociology based in family. By the reason, the member's non-payment reason can be classified by economy, population, and psychology, but there was a comprehension that losing of work desire could be one reason. So we analyzed informations for composition of family of members. In conclusion, we grasped that family conflict makes non-payment and conversion of member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difficult.

Key Words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evasion, late payment, moral hazard, Logistic Regression Model

I. 서 론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7월 건강보험 조직통합에 이어 2003년 7월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통합되었다. 건강보험재정은 그 동안 의약분업과 수가인상, 의료수요의 증가 등으로 2002년 까지 적자를 보였으나 2003년 8월말 수지율이 88.0%로 흑자 전환되었다. 하지만 누적적자가 아직 1조 6천억원(2003년 8월말 기준)에 이르고 있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6년 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수입은 주로 보험료, 국고지원 그리고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6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852만명에 이르고 부과액(4조 7천억)에 대한 납기내 징수율은 96.6%, 누적징수율은 99.2%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지역가입자(881만세대)의 경우는 부과금액(2조 3천억원)에 대해 납기내 징수율이 72.3%이고 누적징수율은 95.4%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징수율이 양 직역간에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납부방식이 직장가입자의 경우처럼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가입자의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일정소득이 없는 세대가 직장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3년 5월말 기준 전체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1,545천세대, 누적체납액은 무려 8천 200억원에 달하였다. 이는 2002년 보다 체납세대가 20만세대, 체납금액은 약 1천억원 증가한 상태이다. 이것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공단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운영지침이 필수적으로 마

런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대한 관리는 외국에서도 상당부분 관심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젊고 건강한 세대의 보험료 기여회피나 제도 불순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 예로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장기 체납자를 분류하여 이들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병원을 이용하게 한 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만 보험자 부담분을 환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중앙회, 2003). 한편, 싱가포르의 경우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연도별 사업자 라이선스를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발급하고 있어, 효과적인 통제기제를 사용하고 있다. 즉,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으므로서 개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아주 강력하게 체납세대를 관리하고 있다(CPF, 2003). 도시국가의 철저한 정부중심의 규제국가로 볼 수 있는 싱가포르의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효율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국가별 체납세대의 관리는 보험제정과 의료보장사각지대의 축소 및 의료보장성 강화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실 건강보험 체납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폭넓게 연구 발표된 것은 많지 않다. 단지 김원훈(2002)과 정우진 외(2003) 등이 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지사를 표본으로 지역가입자의 체납특성 및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 및 연구하였을 뿐이다. 이 중 정우진 외(2003)은 서울의 강남지사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78,858명 자료를 이용하여 체납확률 예측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백운국 외(2002)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무자료 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체납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우진 외(2003) 연구결과 및 체납결정모형을 토대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표본정보를 이용하여 체납세대의 특성과 체납요인을 파악하고, 추정된 체납확률분포를 근거로 체납세대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체납세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체납세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변수

본 연구는 보험료 체납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지역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중에서 2003년 5월 기준 정상납부세대(7,254천세대)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1,303천 세대)¹⁾로부

터 다단계층화추출하여 1%의 분석자료를 표집하였다(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단, 분석단위는 세대의 성·연령, 경제 활동 능력 및 장애 정도 그리고 소득·재산·자동차 보유와 같은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세대단위로 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한 층화기준은 체납·정상납부세대 공통으로 보험료 수준과 권역별 세대분포를 이용하였으며, 체납세대의 경우는 체납특성을 고루 반영하기 위해 체납기간과 체납금액을 추가로 더 고려하였다. 층화구간은 각 층화기준의 분포를 기초하여 5개구간으로 층화하였고²⁾, 층화된 부모집단(subpopulation)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크기는 비례배분하여 각 층 내로부터 단순임의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표본 자료의 변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분석변수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상납부 및 체납세대의 공통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납부세대의 체납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공통된 독립변수의 특성은 크게 인구학적요인, 경제적으로인 그리고 건강상태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건강보험료 체납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세대의 성별과 연령구조를 각각 더미변수화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의 성별, 통계청의 생산연령구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제로 경제활동가능 여부를 반영하고자, 지역보험료의 부과요소인 성·연령점수가 3점 이상이고 가족 구성원에서 만성·희귀질환자수와 장애자 존재 여부를 근거로 경제활동가능상태 더미변수를 고려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한편, 세대의 만성질환자수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 세대의 평균 성·연령점수 특성을 보고자 평균 성·연령점수 분포의 중위수(4.8점)를 기준으로 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자료³⁾와 재산 관련 자료(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전세, 월세), 자동차 관련 자료(자동차세액 기준, 자동차 대수, 자동차 등급), 월보험료 및 세대의 경감종류 및 비율을 고려하였다. 여기서 세대의 총 부과소득과 재산은 소득·재산 보유 유무에 따라 4개의 범주변수로 변환하여 고려하였고, 자동차 및 자가는 각 보유 여부에 그 특성을 보기위해 더미변수로 변화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세대 구성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건강상태로는 세대의 만성·희귀질환자수, 노인경감, 장애경감 및 연간 진료일수를 고려하였다.

-
- 1) 지역가입자 모집단 자료는 5월까지의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8월 10일 현재 체납세대로 하였기 때문에 5월말 기준 154만 세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또한, 체납세대 중 체납금액이 6,000원이하 인 세대는 최소 월보험료 2030원 기준으로 볼 때, 분할납부세대 이거나 부분 체납시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외 함.
 - 2) 보험료 층화분포는 체납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험료 분포의 분위수를 기초로 15000원이하, 15001~30,000원, 45001~70000원, 70,001원과 같이 5개 구간에서 추출함, 체납세대의 체납개월 역시 분포의 분위수를 기초로 3~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37개월 이상 5개 구간에서 표본추출하고, 체납금액은 각 부모집단의 체납금액 분포를 고려하여 추출하였음.
 - 3) 평가율 적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 소득, 농지소득, 연금 소득

<표 1>

분석변수

구 분	특 성	변수명	설 명
종속변수	지역가입세대	체납유무	체납=1, 완납=0
독립변수	권역별	권역별	대도시=1, 중소도시=2, 농복합=3, 기타=4(기준변수)
	경제적 요인	자가유무 자동차유무 소득·재산상태	자가미보유=1, 자가보유=0 자동차보유=1, 자동차미보유=0 소득·재산 모두 없음=1, 재산만 있음=2, 소득만 있음=3 소득·재산 모두 있음=4(기준변수)
		세대의 월보험료	
	인구학적 요인	세대주 성별 세대주 연령 세대의 가족수 경제활동가능정도 세대의 평균 성·연령점수	남자=1, 여자 0 29세이하=1, 30~49세=2, 50~64세=3, 65세이상=4(기준변수) 가족수 1인=1, 가족수 2인 이상=0 가족구성모두 경제활동가능한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세대의 평균 성·연령점수 ≥ 4.8 이면=1, 그렇지 않으면=0
	건강상태 요인	세대의 질병환자수 장애경감 노인경감 세대의 연간 진료일수	세대의 만성 및 희귀난치환자수

1) 만성질환명 :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산성의 장애, 간의질환, 만성신부전증

희귀성질환명 :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 크론,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2) 권역별에서 '기타 지역'은 잦은 지역 이동자, 주소불명자 등을 의미함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절차 및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지역가입세대의 체납을 유발하는 요인 및 체납세대의 특성을 보고자 지역가입세대의 성별과 연령구조,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능력, 장애 및 질병 정도 등이 보험료 체납(유·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였다. 추정된 모형의 최적화를 위해 변수선택법(stepwise method)을 적용하였으며, 이로부터 체납의 발생(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결정하였다.

셋째,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세대 중에서 보험료 체납가능성이 높은 세대를 판별하고 유형화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확률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체납확률모형으로부터 사후확률을 구하고, 이 사후확률을 이용하여 납부세대의 '체납확률'을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납부세대 중에서 체납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를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된 체납세대별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 및 건강수준 등을 비교 분석하므로써, 체납된 유형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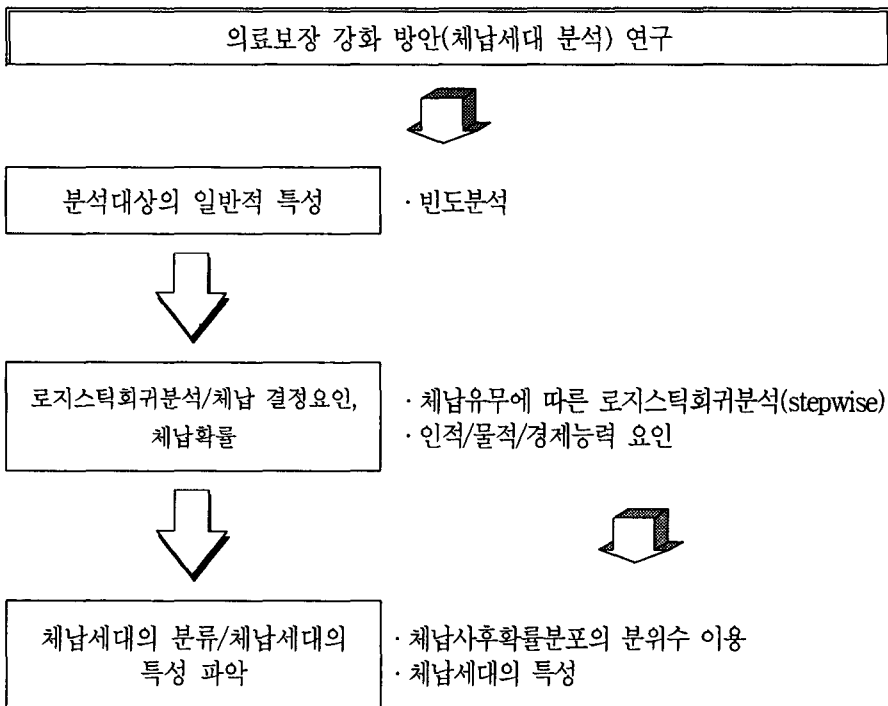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분석 및 방법 흐름도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체납확률모형을 추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추정된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회귀계수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Wald 통계량에 근거한 유의성을 검토하였으며, 납부세대의 특성들이 건강보험료 체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오즈비(Odds Ratio)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모형의 설명도 및 타당성은 -2로그우도 χ^2 값과 정분율로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보험료 납부관련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은 전체 지역가입자 중에서 정상납부세대와 체납세대(130만세대)로부터 각각 1%를 다단계층화추출하여, 정상납부된 73,895세대와 체납된 13,084세대로 하였다(표 2). 따라서 본 분석자료 기준 2003년 5월 당시 지역가입자의 3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전체의 1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체납세대와 정상납부세대 간의 성별, 연령, 가족수, 자가유무, 자동차 보유 유무, 그리고 경감유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인구학적으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납세대에서도 압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높은 6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주의 연령 분포는 체납세대의 경우 30·40대(30~49세)가 62.9%(8,234세대)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 20대 미만과 65세 이상인 세대는 각각 0.6%와 5.3%의 낮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20대와 30~49세 계층은 정상납부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50~64세와 65세 이상 계층은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체납세대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구성이 48.9%(6,394세대)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정상납부세대는 4인가족이 24.9%(18,424세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상적인 4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가족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시사한다.

세대의 자가가 있는 세대의 비율은 정상납부세대(52.2%)에 비해 체납세대가 27.5%로 아주 낮은 수준에 있으나, 자동차 보유 현황을 보면 오히려 체납세대가 자동차 보유비율이 53.3%로 정상납부세대의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대별 만성질환자 및 장애자와 권역별 및 세대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경감세대의 비율은 체납세대가 정상세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과자료 유형별 그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86,979세대 중 무자료 세대는 2.2%(1,935세대)이고, 유자료 세대는 97.8%(85,044세대)로 나타났다. 부과자료 보유형태에 따라 7개 유형으로 살펴보았는데, 7개 유형 중 체납세대가 정상납부세대보다 상대적인 비중이 큰 유형은 재산>재산, 자동차>자동차>소득, 자동차>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상납부세대는 소득, 재산, 자동차>소득, 재산 유형 순으로 체납세대보다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자료 세대 중 보험료 체납유형은 소득, 재산, 자동차 중 단독 자료 보유세대와 자동차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체납할 개연성이 많음을 보여준다. 특히, 재산과 자동차의 경우 현금 유동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들 세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표 3).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세대, %)

특 성	세부내용	체납세대	정상납부세대
		세대수 (%)	세대수 %
세대주 성별	남 성	9,118 (69.7)	54,921 (74.3)
	여 성	3,966 (30.3)	18,974 (25.7)
세대주 연령	20세 미만	81 (0.6)	163 (0.2)
	20세~29세	1,900 (14.5)	4,480 (6.1)
	30세~49세	8,234 (62.9)	40,744 (55.1)
	50세~64세	2,181 (16.7)	19,381 (26.2)
	65세 이상	688 (5.3)	9,127 (12.4)
가족 수	1명	6,394 (48.9)	18,129 (24.5)
	2명	2,504 (19.1)	15,925 (21.6)
	3명	1,797 (13.7)	14,378 (19.5)
	4명	1,721 (13.2)	18,424 (24.9)
	5명이상	668 (5.1)	7,039 (9.4)
자가보유	유	3,592 (27.5)	38,567 (52.2)
	무	9,492 (72.5)	35,417 (47.8)
자동차보유	유	6,060 (46.3)	41,179 (55.7)
	무	7,024 (53.7)	32,716 (44.3)
만성질환자	유	771 (5.89)	8,970 (12.13)
	무	12,313 (94.11)	65,011 (87.87)
장애자	유	446 (3.41)	4,733 (6.41)
	무	12,638 (96.59)	69,191 (93.59)
경감	유	2,971 (22.7)	20,980 (28.4)
	무	10,113 (77.3)	52,915 (71.6)
계		13,084 (100.0)	73,895 (100.0)

1) ()내의 수는 계의 구성비

<표 3>

지역보험가입세대의 부과자료 유형별 분포

(단위 : 세대, %)

구분	무자료 세대	유자료 세대				소득, 재산	소득, 자동차	재산, 자동차	소득, 재산, 자동차	소계	계
		소득	재산	자동차	자동차						
정상	1,644 (2.22)	528 (0.71)	19,766 (26.75)	766 (1.04)	10,778 (14.59)	759 (1.03)	17,139 (23.19)	22,515 (30.47)	72,251 (97.78)	73895 (100.0)	
체납	291 (2.22)	124 (0.95)	5,114 (39.09)	199 (1.52)	1,495 (11.43)	163 (1.25)	3,407 (26.04)	2,291 (17.51)	12,793 (97.78)	13,084 (100.0)	
계	1,935 (2.22)	652 (0.75)	24,880 (28.6)	965 (1.11)	12,273 (14.11)	922 (1.06)	20,546 (23.62)	24,806 (28.52)	85,044 (97.78)	86979 (100.0)	

1) 무자료세대와 소계에서 ()내의 수는 계에 대한 구성비이고, 유자료세대에서 ()내의 수는 소계를 기준으로 한 구성비를 의미함.

표 4는 납부세대 특성의 평균수준을 정상납부세대와 체납세대 간의 편차를 보고자, 가족 수, 소득 및 재산유형의 평균을 살펴본 것이다. 평균적으로 정상납부세대의 가족수는 2.8명(편차 1.4명)이고, 체납세대의 가족수는 2.1명(편차 1.3명)으로, 체납세대의 가족수가 0.7명 적었다.

소득 및 재산수준의 평균과 세대수는 각각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만을 고려하여 얻은 결과이다. 우선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정상납부세대의 경우 연간 총소득 평균 금액이 765만 원선이고, 체납세대는 642만 원선으로 정상납부세대가 120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별로는⁴⁾ 정상납부세대는 부동산 소득이 987만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근로 소득으로 881만원선, 농지소득이 751만원선, 사업소득은 684만원, 연금소득은 484만원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반면, 체납세대의 경우, 정상납부세대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소득이 835만원, 사업소득이 613만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농지소득의 경우는 체납세대가 정상납부세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체납세대가 빈도가 적고, 표준편차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정상납부세대와 체납세대는 소득액 평균에서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수준이 체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득만을 놓고 볼 때, 정상납부세대의 경우에 배당소득의 평균이 7,481만원으로 나타나는데, 최고 금액을 가지고 있는 세대의 배당소득이 17억6천300만원이고, 사례수가 47세대에 불과하여, 평균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자소득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어, 체납세대와 비교하지 않았다.

<표 4> 지역가입세대의 특성 비교

특 성	세부내용	정상납부세대		체납세대	
		평균±표준편차	세대수(%)	평균±표준편차	세대수(%)
가족수 (명)		2.8 ± 1.4	73,895	2.1 ± 1.3	13,084
월보험료(원)		45,394 ± 8,504	73,895	30,433 ± 26189.1	13,084
소득유형	이자소득	1,283 ± 3487	25(0.06)	7300 ± 1221	2(0.02)
	배당소득	2,817 ± 17,776	47(0.14)	89 ± 226	2(0.02)
	부동산소득	987 ± 2057	2,533(7.33)	835 ± 1795	60(1.47)
	사업소득	684 ± 1341	19,208(55.55)	613 ± 1235	1,938(47.61)
	근로소득	881 ± 4710	13,746(39.75)	580 ± 933	2,248(55.19)
	기타소득	201 ± 337	729(2.11)	181 ± 668	88(2.16)
	농지소득	751 ± 640	98(0.28)	763 ± 154	4(0.10)
	연금소득	484 ± 656	4,403(12.73)	339 ± 548	204(5.01)
	총 소득 (단위:만원)	765 ± 3520	34,580(100.0)	642 ± 1177	4,073(100.0)
재산유형	건축물	1,969 ± 4479	38,609(55.0)	1,685 ± 4010	3,218(26.15)
	선 박	543 ± 1059	63(0.09)	827 ± 937	4(0.03)
	부대시설	237 ± 169	1,252(1.78)	419 ± 1743	65(0.53)
	항공기	0 ± 0	0(0.0)	0±0	0(0.0)
	토 지	2,655 ± 8016	42,347(60.33)	1,576 ± 4133	3,825(31.08)
	전 세	466 ± 431	33,378(47.55)	331 ± 310	9,149(74.34)
	월 세	304 ± 263	2,152(3.07)	249 ± 173	366(2.97)
	총재산 (단위:만원)	2,548 ± 2,421	70,198(100.0)	1,066 ±981	12,307(100.0)

- 1) 소득과 재산의 평균 및 빈도는 소득,재산이 존재하는 세대만을 고려한 하였으며, 세대별 소득과 재산 자료는 중복처리되었음.
- 2) 근로소득의 경우 그 대부분은 비가입세대주 및 퇴직 세대의 소득자료로 부과자료에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재산 유형도 소득 유형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정상납부세대의 평균 재산규모는 2천 548만원이고, 체납세대는 1천 66만원으로 소득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정상납부세대의 재산 형태별 보유 현황은 토지 재산이 2천 655만원, 건축물이 1천 969만원의 분포를 보였고, 체납세대는 건축물이 1천 685만원, 토지재산이 1천576만원의 평균을 보이고 있어, 보유형태도 체납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⁵⁾.

<표 5>

지역가입세대의 경감 분포

(단위 : 세대, %)

구 분	정상납부세대		체납세대	
	경 감	비경감	경 감	비경감
총 경감 세대	20,980(28.4)	52,915(71.6)	2,971(22.7)	10,113(77.3)
지역경감세대	15,508(21.0)	58,387(79.0)	2,437(18.6)	10,647(81.4)
세대경감세대	8,836(22.0)	65,059(88.0)	798(7.0)	12,286(93.0)

1) 지역 및 세대경감세대의 빈도는 한 세대에 중복 산정된 수치이며, 총 경감세대는 세대에 경감이 발생한 유무에 대한 빈도임.

끝으로 경감을 받고 있는 세대에 대한 비중은 정상납부세대가 체납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세대경감의 경우에 정상납부세대가 22.0%으로 체납세대의 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험료 경감이 일정부분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에 순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 건강보험료 체납요인에 따른 체납세대 특성

본 절에서는 보험료 납부세대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는 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결정된 체납요인을 기초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건강보험료 체납확률모형

지역가입세대의 체납을 유발하는 요인 및 체납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지역가입세대의 특성 즉 성별과 연령구조,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가능정도, 장애 및 질병 정도 등이 보험료 체납(유·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였다. 추정된 모형은 체납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인구학적 특성을 기본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요인들을 추가하여 3개의 부분모형과 전체모형을 추정하였다(표6 참조). 또한 추정된 전체모형의 최적화를 위해 변수선택법(stepwise method)을 적용하였으며, 이로부터 체납의 발생(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 체납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모형은 {성별, 세대주의 연령, 가족수, 경제활동가능상태, 세대의 평균 성·연령점수, 소득·재산유무, 월보험료,

5) 선박과 부대시설에서는 체납세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소득에서 농지소득 분포와 같이 표준편차가 높고, 사례수가 적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가보유 유무, 자동차보유 유무, 질병요인, 노인경감, 장애경감, 진료일수, 지역)을 공변량으로 하는 모형이 추정되었다.

추정된 건강보험료 체납확률모형은 표 6와 같고 먼저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모형1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료 체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족수가 1인 세대'로 이는 2인 이상인 세대보다 체납의 가능성이 무려 2.76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세대주의 연령이 체납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세대주 연령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연령이 30세 이하의 경우 기준 연령보다 4.32배 체납의 가능성이 높았고, 30~50세인 경우가 2.84배, 50~64세는 1.65배 높았다. 한편 세대주가 남자인 경우가 여자보다 체납할 가능성이 1.05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정우진 외(2003) 연구결과와도 상당부분이 일치함을 보였다.

모형2는 모형1에 세대의 경제적 특성이 추가된 것으로 인구학적 특성의 경향은 대체적으로 모형1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세대의 소득·재산 유무에 따른 체납의 가능성은 '소득만 있는 세대'가 소득·재산이 모두 있는 세대보다 체납확률이 1.93배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세대'일 경우는 1.53배, '재산만 있는 세대'의 경우는 체납할 가능성이 1.30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가 없는 세대'의 경우는 자기가 있는 세대보다 체납 가능성이 1.85배 높았으며, 자동차 보유의 경우는 보유한 세대가 보유하지 않은 세대보다 1.02배 높았다.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의 경제적 특성으로 고려된 요인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모형3은 모형2에 세대의 질환자수 및 경감수준을 나타내는 요인 특성을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세대의 가족구성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 가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대리변수 즉 '경제활동 가능상태⁶⁾'라는 파생변수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질병 및 경감특성(희귀 및 난치질병, 노인경감, 장애요인, 세대의 진료일수)등은 체납의 가능성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수급에 대한 세대의 필요성이 건강한 세대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⁷⁾. 결국 건강보험의 체납은 가족구성 형태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평균 성·연령대 및 장애와 질병이 없는 세대에서 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이 가입세대의 가족 모두가 경제활동가능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의 개연성이 높은 바, 최종모형에는 세대의 평균 성·연령점수⁸⁾와 권역별 거주자 특성을 모형3에 추가하였다. 단

6) 세대구성원의 성·연령점수가 3점보다 크고 가족구성원 모두 만성희귀질환 및 장애자가 없는 세대를 의미함.
7) 이는 특히 세대주의 연령대가 65세 이상인 경우보다 젊은 계층의 체납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명확하게 나타남. 즉 젊은이의 경우 건강의 필요성이 약한 것이 기여회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30~50세의 경우 2.9배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8) 체납세대의 특성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세대의 평균 성·연령점수를 4.8점 기준으로 이항변수로 변환하여 최종모형에 포함시킴.

‘세대의 평균 성·연령점수’ 변수가 모형3에 추가되면서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체납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세대주의 연령변수는 최종모형에서 제외하고 이외의 모든 변수는 최종모형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지역가입세대의 체납은 건강한 세대일수록 그리고 평균 성·연령점수가 4.8점 이상인 세대가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230배 높은 체납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역별 체납의 가능성은 기타 지역을 기준변수로 할 때, 체납할 가능성이 대도시(0.31배) > 중소도시(0.27배) > 도농복합(0.21배) 순으로 높았으나 모두 기타지역보다는 체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잦은 이동자와 주소 불명자 등으로 구성된 세대로서 체납개연성이 더 높은 것이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최종모형에 포함된 체납요인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납부 세대의 어려운 경제상태도 있으나, 세대가 모두 젊고 건강하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1인 가족세대의 경우가 보험료 체납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동경의 문경구와 오사카시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다(백운국 외, 2003). 이러한 세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고 건강한 계층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강조하자면, 지역가입자의 체납세대를 사전 및 사후적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의도적인 기여회피에 의한 체납세대의 관리 강화와 생계곤란으로 인한 체납세대의 정책적인 배려가 주요과제라 생각된다. 특히 생계곤란과 관련하여 가족갈등이나 세대구성 문제로 인한 체납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체납세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납부회피세대와 생계형 체납세대를 분명하게 유형화 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납부세대의 체납확률분포 및 특성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세대 중에서 보험료 체납가능성이 높은 세대를 판별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체납예측모형을 식 (1)과 같이 추정해 보았다. 이 절에서는 추정된 (1)식을 이용하여 납부세대의 ‘체납확률’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납부세대 중에서 체납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사후확률⁹⁾은 개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추정된 식 (1)로부터 체납세대를 분류하기 위한 사후확률 $p(Y=1)$ 을

9) 추정된 각 세대의 체납할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고, 적절한 분류기준 값(cutoff value, threshold value)에 의해 사전에 납부세대의 체납가능성을 판단하는 특성치로서 사용할 수 있다.

<표 6> 추정된 건강보험료 체납확률모형

체납 특성	변 수	모형1		모형2		모형3		최종모형	
		β	(OR)	β	(OR)	β	(OR)	β	(OR)
	절 편	- 2.2621**		-2.2014**		-1.7512**		-0.3184**	
성별	남자	0.0482*	(1.05)	0.1782**	(1.96)	0.2029**	(1.12)	0.0408	(1.04)
	여자†	-		-		-		-	
인구	연령	29세 이하	0.7114** (4.32)	0.5201** (3.29)	0.2392** (1.19)	0.0609** (1.24)			
		30 ~50세	0.2922** (2.84)	0.2563** (2.53)	0.0609** (1.24)				
		51 ~64세	-0.2511** (1.65)	-0.1035** (1.77)	-0.1335** (1.02)				
		65세이상†	-	-	-				
학적 특성	가족수	1인	1.0154** (2.76)	0.7130** (2.04)	0.5157** (1.67)	0.9929** (2.70)			
		2인 이상†	-	-	-	-			
경제 적 특성	경제활동 가능상태	양 호			0.5036** (1.65)	0.4155** (1.52)			
		비양호†			-	-			
	세대평균성 ·연령점수	48점 이상				5.4403** (230.5)			
		48점 미만				-			
경제 적 특성	소득·재산 유무	없음		0.0896* (1.53)	0.1149** (1.56)	0.1291** (1.84)			
		재산만 있음		-0.1726** (1.30)	-0.0058 (1.38)	-0.0766** (1.48)			
		소득만 있음		0.3206** (1.93)	-0.2203** (1.73)	0.4176** (2.46)			
		모두있음†		-	-	-			
경제 적 특성	월보험료			-8.0E-08** (1.00)	-6.0E-6** (1.00)	-3.0E-6** (1.00)			
	자 가 보 유† 미보유			-	-	-			
				0.6174** (1.85)	0.5971** (1.82)	0.7447** (1.12)			
건강 상태 특성	자동차 보 유 미보유†			0.0788** (1.02)	0.0837** (1.09)	0.3524* (1.42)			
				-	-	-			
건강 상태 특성	만성·희귀난치질환자수 노인경감 장애경감 진료일수					-0.0312 (0.97)		-2.3517** (0.96)	
						-0.0192** (0.98)		-0.0297** (0.97)	
						-0.0120** (0.97)		-0.1635** (0.85)	
						-0.003** (1.00)		-0.0034** (1.00)	
권역 별	대도시							-0.1701** (0.31)	
	중소도시							-0.2866** (0.27)	
	도농복합 기 타†							-0.5460** (0.21)	
	-2log L	69,144	67,323	65,614	48,293.48				
	정분율	59.7	70.7	73.6	88.0				

주) † : 기준변수, OR : Odds Ratio, p 값 < 0.01 : **, p 값 < 0.05 : *

$$\begin{aligned} \hat{p}_1(\mathbf{x}) &= P(Y=1 | \mathbf{x}) \\ &= \frac{\exp(\hat{\beta}' \mathbf{x})}{1 + \exp(\hat{\beta}' \mathbf{x})} \end{aligned} \quad (2)$$

와 같이 추정하였고, 여기서 $\hat{\beta}$ 는 식 (1)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벡터이고 \mathbf{x} 는 공변량벡터이다. 체납확률은 체납할 사후확률 (2)에 100을 곱하여 100점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단, '체납확률'을 이용하여 지역보험 가입세대로부터 체납한 세대를 분류하기 위한 분류기준값(threshold value)은 정분류(correct classification), 민감도(sensitivity) 그리고 특이도(specificity)를 고려하여 사후확률분포의 상위 25%되는 값으로 하였다(강현철 외,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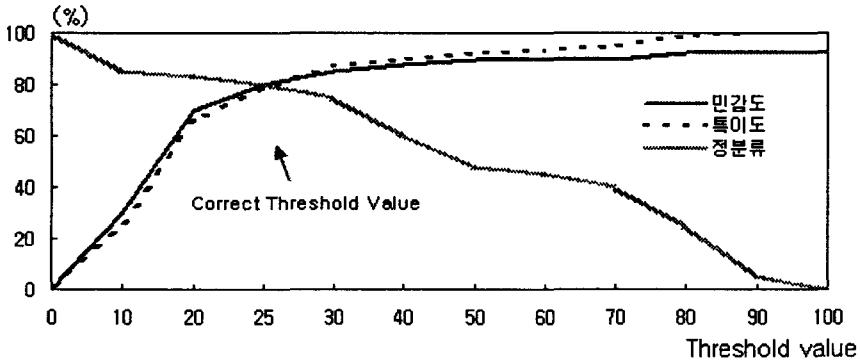


그림 2. 체납확률분포의 분류기준도¹⁰⁾

체납확률분포의 분위수를 이용하여 구간별 납부세대의 구성비율을 도식화한 그림 3을 보면, 전반적으로 체납세대는 정상납부세대보다 체납확률이 높았으며, 반면 정상납부세대는 5%이하의 체납확률 구간에 55.00% 세대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납부세대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체납확률'을 근거로 특성치 분포를 크게 4등분하고, 분류기준값을 기준으로 '체납확률'이 75이상인 구간을 구간 I, 50~75이면 구간 II, 25~50이면 구간 III 그리고 0~25이면 구간 IV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¹¹⁾.

$$10) \text{ 정분류} = \frac{\{(\text{실제 0, 예측 0}) \text{의 빈도} + (\text{실제 1, 예측 1}) \text{의 빈도}\}}{\text{실제 관찰치의 빈도}} \quad \text{민감도} = \frac{\{(\text{실제 1, 예측 1}) \text{인 관찰치의 빈도}\}}{\text{실제 1인 관찰치의 빈도}}$$

$$\text{특이도} = \frac{\{(\text{실제 0, 예측 0}) \text{인 관찰치의 빈도}\}}{\text{실제 0인 관찰치의 빈도}}$$

11) 구간 III과 IV는 정상납부세대와 체납세대가 특성치 25에서 서로 교차하고 있어, 체납확률 0~50인 구간을 다시 세분류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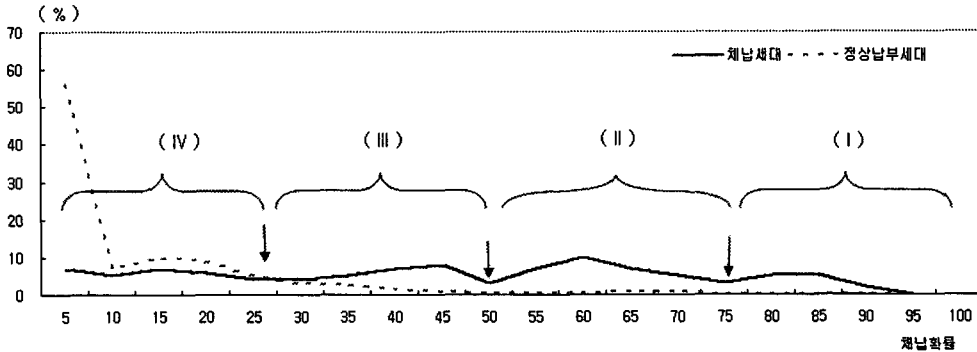


그림 3. 체납횟률구간별 납부세대의 분포

표 7에와 같이 체납횟률이 분류기준값(상위 25%점 : 체납횟률 75이상)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체납세대는 전체 체납세대의 15.00%(1,963세대)로, 여기에 속한 체납세대의 월평균 보험료(15,311원)는 전체평균보험료(30,433원)보다 15,122원 낮은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세대의 평균 성·연령점수는 6.21로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의 세대들보다 가장 젊은 계층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앞서 체납예측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학적 특성 중 1인 세대특성, 세대의 연령 및 경제활동 가능상태가 체납 가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표 6와 표 7). 반면, 체납횟률이 가장 낮은 구간IV에서는 월평균보험료가 전체평균 보험료(30,433원)에 비해 10,987원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재산·자동차의 평균수준도 역시 모두 체납세대의 전체 평균수준보다 높았다.

IV. 고 찰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3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심으로 이들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체납의 결정요인을 보고자,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2003년 5월말 기준 지역보험료 납부세대의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일반적 특성과 체납의 결정요인 및 체납횟률모형을 추정하여 보았다. 또한 추정된 체납횟률분포로부터 체납세대를 군집하고, 각 군집에 대하여 체납세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체납횟률모형으로 추정하였고, 또한 추정된 체납횟률모형의 사후확률을 이용한 체납세대의 유형을 앞에 제시된 표 7과 같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건강 보험료 체납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대의 특성 중 인구학적이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대주가 남자인 경우 그리고 1

<표 7>

체납확률 구간별 체납세대 특성 비교

(단위 : 세대, %)

구 분	구간Ⅳ 0~25	구간Ⅲ 25~50	구간Ⅱ 50~75	구간Ⅰ 75~100	계
세대수	3390 (25.91)	3,585 (27.40)	4,146 (31.69)	1,963 (15.00)	13,084 (100.0)
성·연령점수(평균)	4.92	4.53	5.79	6.21	4.9
월보험료(평균 : 원)	41,420	30,645	22,297	15,311	30,433
총체납액(평균 : 원)	508,449	383,911	306,048	459,195	568,294
체납개월(평균:개월)	14.2	15.3	14.9	20.2	15.4
소득(평균 : 만원)	899	743	702	322	642
재산(평균 : 만원)	2,550	1,949	905	355	1,066
자동차세액(평균 : 만원)	28.96	25.20	26.31	19.84	27.39
1인 세대	417 (6.52)	624 (9.76)	3,837 (60.00)	1,516 (23.71)	6,394 (100.0)
장애, 만성 및 희귀난치 질병					
만성·희귀난치 질병	365 (51.34)	197 (27.71)	87 (12.24)	62 (8.72)	711 (100.0)
장애세대	268 (60.09)	81 (18.16)	66 (14.80)	31 (6.95)	446 (100.0)

- 1) 보험료 부과 소득, 재산 및 자동차세액의 평균은 소득, 재산 및 자동차가 있는 세대만을 고려한 평균.
2) ()내의 수는 계에 대한 구성비

인세대이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정상인이 체납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특성 중에서 세대의 소득·재산 유무에 따라 체납의 개연성에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재산이 모두 있는 세대보다 소득만 있는 세대 >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세대 > 재산만 있는 세대 순으로 체납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가가 없는 세대의 경우는 자가가 있는 세대보다, 자동차 보유의 경우는 보유한 세대가 보유하지 않은 세대보다 체납의 개연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납특성 결과는 정우진 외(2003년)의 연구에서 나타난 세대주의 성, 1인 세대 그리고 자가유무 및 자동차 유무에 따른 특성과의 상당부분 일치하게 나타났다. 한편, 세대의 질병 및 경감특성(희귀 및 난치질병, 노인경감, 장애경감)과 세대의 진료일수는 체납의 가능성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수급에 대한 세대의 필요성이 건강한 세대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권역별 체납의 가

능성은 기타 지역을 기준변수로 할 때 체납할 가능성이 대도시 > 중소도시 > 도농복합 순으로 높았으나, 기타지역의 특성(잡은 이동자와 주소 불명자등으로 구성된 세대) 때문에 기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체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체납세대의 보다 집단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 체납확률모형의 사후확률분포를 기초로 4개의 집단 중 체납확률의 상·하 집단 특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체납확률이 분류기준값(상위 25%점 : 체납확률 75이상)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체납세대(구간 I: 가장 높은 체납확률 집단)의 경우는 전체 체납세대의 15.00%(1,963세대)로 월평균보험료(15,311원)가 전체 평균보험료(30,433원)보다 15,122원 낮은 체납세대들이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 작은 계층일수록 실제로 체납가능성 높다는 사실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세대의 평균 성·연령점수는 6.21로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의 세대들보다 가장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체납예측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 세대특성, 세대의 연령 및 경제활동 가능상태가 체납 가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표 6, 7 참조). 반면, 체납확률이 가장 낮은 구간IV에서는 월평균보험료가 전체평균보험료(30,433원)에 비해 10,987원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재산·자동차의 평균수준도 역시 모두 체납세대의 전체 평균수준보다 높았다. 이는 생계곤란에 의한 체납세대도 체납의 큰 요인이긴 하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 더 심각함을 드러낸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체납세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 납부기피를 조절할 수 있는 관리방안은 물론, 순수 생계곤란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납부세대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보험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건강보험 3개월 이상 체납된 세대의 표본정보를 이용하여, 체납의 특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추정된 체납예측모형으로부터 체납확률을 정의하고, 추정된 체납확률을 근거로 체납세대의 유형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체납확률 구간별 체납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체납세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자나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체납세대의 경제적 특성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체납세대의 17.51%가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보유한 세대라는 사실은 건강보험료 납부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캠페인 활동이 체납의 사전관리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해준다.

둘째, 세대주가 20, 30대이면서 1인 세대 혹은 50대의 1인세대에 대한 체납관리도 필요하다. 단순히 이들을 보험료 납부회피 집단으로만 판단하기에 앞서, 가족사회학적 측면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결정 요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인세대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체납의 개연성이 2.70배 높은 결과가 이를 반증해 보이고 있다.

셋째, 분할납부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체납세대를 건강보험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현행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경감 수준을 확대하고,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 세대에서 피부양자 등록 사실을 몰라 부모와 형제가 보험료 체납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직장에 새로 입사하거나 세대를 분리하여 처음으로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된 경우에 보험증을 교부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홍보 자료를 배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일본사회보험연구소, 2001).

다섯째, 건강보험 체납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납관리시스템개발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즉 체납세대를 사전 혹은 사후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납세대의 행태, 추이 및 예측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가능한 솔루션개발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정보시스템이 공단의 각 지사별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인프라 마련을 위한 내외부 전문인력충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첫째 2003년 5월말 특정 시점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체납세대의 행태 등의 추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둘째는 지역가입 세대에서 지역건강보험의 주 대상자인 자연인에 대한 소득파악이 전체 지역가입자의 약 30%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체납원인 분석 및 유형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다소 현실적인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건강보험료의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체납세대의 특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며, 납부세대의 부담능력 부족으로 실제 체납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도 역시 알 수가 없어다는 점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납부세대의 납부실태조사나 시계열분석을 통해 납부세대의 행태를 보다 심도 있게 비교분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체납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國民健康保險中央會, 滯納整理 매뉴얼 I, II. 實務資料編; 2003.
- 강현철 외. 데이터마이닝 방법론 및 활용. 자유아카데미; 1999.
- 김두철 외. 보험과 위험관리. 문영사; 1998.
- 김용수.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에 관한 연구. 의료부조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서울: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 김원훈.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체납요인 분석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 김창엽. 차상위 계층 건강보장의 문제점과 대책.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연대회의 창립 세미나 자료집; 2001.
- 민흥기.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중앙대학교; 2002.
- 박능후. 빈곤의 원인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2000;41.
- 박순일, 황덕형, 최현수. 공적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의 빈곤층의 소득보장 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 박찬용, 김연명, 김태완 공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복지동향 2003;51.
- 백운국, 이애경, 최인덕, 이병일. 지역가입자 체납유형 분석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서울 : 건강보험연구센터;2003.
- 정우진, 이선미, 김원훈, 신승호, 조우현.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체납결정요인 및 체납확률 예측모형. 보건행정학회지 2003;13(2).
- 社會保險研究所. 민원인 설득을 위한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 국보·개호·국민연금수납대책. 일본 라이프플랜 발간실;2001.
- 신영석 외.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 이상천. 체납보험료의 징수 실제. 의료보장 1997;134.
- 이현주. 빈곤과 차상위 계층. 보건복지포럼 2000;41.
- 정의화. 이혼·혼인통계작성 방법에 대한 고찰. 통계청; 2000.
-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1997.
- 차홍봉.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국민건강 보험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보건복지부 2003.
- 최인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2002.

- 한경혜. 한국가족의 변화와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위한 정책과제. 서울대학교아동복지학과; 2002.
- 허 선. 차상위계층인가? 방치된 수급권자인가?. 복지동향 2001;36.
- Bailey CT, John. Strategies to reduce contribution evasion in social security financing. World development 2001;29(2):385.
- Begg CB, Gray RC. Calculation of polychotomous logistic regression parameters, Using Individualized Regression. Biometrika 1984.
- Berry JJ, Hayes D, Latour KR, Schlotzhauer DC. Logistic regression example, using the SAS system; 1955.
- Cillian C. Contribution evasion. Social Security Pensions: Development and reform. ILO; 2000.
- Hindriks J, Keen M, Mhoo A. Corruption, extortion and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99;74(3):395-430.
- Lovely ME. Crossing the border: does community tax evasion reduce welfare and can enforcement improve i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1994;27(1):157-174.
- Roberts S, Stafford B, Ashworth K. Assessing the coverage gap. ISSA Initiative Findings & Opinions 2002;(4).